



가톨릭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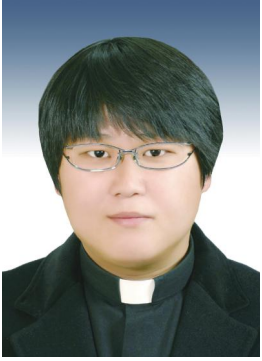
사순 제2주일
2024년 2월 25일
제2606호



십자가의 신비로운 빛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 | |
|---------|---|
| 제 1 독 서 | 창세 22,1-2.9-10-13,15-18 |
| 화 답 송 |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 제 2 독 서 | 로마 8,31-34 |
| 복음 환호송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 복 음 | 마르 9,2-10 |
| 영 성 체 송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김인식 대철 베드로 신부
교포사목(미국 오거스타)

변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변화는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시간과 장소, 사건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변화의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큰 충격은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와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지나온 삶을 부정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쌓아 올리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포기과 비움 없는 변화는 그저 텅 칠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그 칠이 벗겨지고 나면 변화하기 전의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로 초대하십니다. 복음은 마치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세 번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둘째는 오늘 복음의 거룩한 변모 때에, 마지막은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세례때에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께서 당신의 뜻을 잘 알고 있음을 공표하십니다(마르 1,11).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룩하게 변화했을 때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의 그것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마르 9,7). 마지막으로 성체성사를 세우시며 새 계약의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명하십니다(루카 22,19-20). 우리는 복음서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목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오늘 거룩한 변모를 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많은 이들에게 쉽게 보여주셨으면 보다 많은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변화가 스스로의 결정과 용기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듯합니다.

완전한 변화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즉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완전한 변화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1)

성지 순례: 튀르키예 편

최영 베드로/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교구 성경사목부 기획과 주관으로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사도 바오로 전도 여행의 주요 지역이던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단은 최태준 신부(사목국장)와 장성근 신부(사목국 부국장), 임 아가피토 수녀(성경사목부), 정 바르나바 수녀(성경사목부) 그리고 교구 성경교육봉사자와 성경교육반, 공부반 그리고 가족들을 포함 모두 64명의 큰 행렬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바오로가 전도 여행의 거점으로 삼았던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그의 고향 타르수스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던 지하 동굴 도시 카파도키아의 데린쿠유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터들과 에페소, 사도행전을 쓴 루카를 만났고 그리스 땅을 향해 배를 탄 곳 트로아스 외에도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웠던 많은 교회의 터들과 후대에 세운 기념 성당들, 그리고 수도원들과 동방교회와 소피아 대성당까지 여러 곳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순례지 성당에서 매일 미사를 드리며 가정과 공동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을 위한 많은 기도를 드렸고, 특별히 버스로 이동 중에는 아침기도와 낮기도 그리고 저녁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오디케이아

이제 그 큰 감동들과 기쁨으로 마음에 담아온 순례지들에서 몇 곳을 다시 떠 올리면서 더 큰 믿음을 다짐합니다.

●전교의 거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와 바오로의 고향 타르수스.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킬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이요.”(사도 21,39)

사도 바오로님! 무척이나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걷던 이 길들이 이렇게 멀고 험하고 바람에 나무가 휘며 뒤틀리고 안개가 어두운 그 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길 어딘가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 길을 되돌아 사랑과 구원의 빛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보셨던 황소같이 거친 산맥들과

저 아래 항구와 지중해 짙은 바다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 전교의 길은 이런 희생과 수고와 확신이 언제나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발자취에서 배웁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타르수스에서는 집터와 우물 외에는 당신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당신을 가슴으로 만났고 짙은 신앙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찾는 우리의 여정에 반갑게 함께하소서!

●요한 묵시록에서 만나는 7대 교회 터들 중 에페소에서.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묵시 2,4)

사도 요한이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가르침과 격려와 힐책을 지진과 세월로 폐허가 된 그 교회터에 서서 우리들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에페소

에페소는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던 본거지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독특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만을 위한 동기와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이 단순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식어지고 형식적인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과 참된 것만 말하고, 행하기를 에페소 옛터에서 또다시 다짐합니다.

이렇게 크고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순례 8일 차에는 튀르키예의 트로아스를 떠나 그리스에 입국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유럽 땅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날 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사도 바오로와 같은 꿈이었을까요?

(트로아스에서)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사도 16,9).

▶3월 원고에는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2) ‘그리스’ 편이 이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슬픔

손신기 안드레아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국화축제가 열리는 늦가을이다. 대로변의 은행나무 잎들은 이미 노랗게 물들고 바삭 말라서 온기마저 완전히 빼앗긴 채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한 잎 두 잎 지나간 아쉬움을 뭉쳐 쌓아올려 인도 곳곳에 작은 섬들을 만든다. 이렇듯 가을은 바짝 쫓아오는 겨울 북풍의 조급함에 밀려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빨라지는 계절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국화꽃의 비닐하우스 온실 재배는 1961년 마산 회원동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성공하였다. 추운 겨울에 온실 재배가 성공하여 국화꽃이 처음 열리는 날, 최초의 생명이 하느님의 따뜻한 입김에서 태어난 때처럼 엄청난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호했을 것이다. 이어 상업재배와 일본수출까지 이루니 마산은 국내 화훼산업의 메카로 떠올랐고 이를 기려 매년 원조 국화축제가 마산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추억의 나이트를 세다 보니 발걸음에 절로 힘이 들어가고 빨라진다.

폐막 며칠 전 아름다운 국화꽃 향기와 인파로 넘치는 국화축제장을 서둘러 찾았다. 갖가지 형상과 의미가 꽃으로 피어난 국화작품은 예년과 비슷한 콘셉트이지만 여전히 수더분하여 오히려 정겨움을 더한다. “당신이 참 좋다”라는 가랜드가 걸려있는 국화 터널을 통과하니 마음이 절로 따뜻해진다. 이 따스함이 스러지기 전에 이를 배경으로 사진이라도 같이 찍고 싶어 항상 밝은 미소의 그녀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아쉽게도 아예 병실을 벗어날 수조차 없다. 그러면 진노랑 국화꽃 향기를 병실의 그녀에게 어떻게 전송할지가 고민이다.

얼마 전만 해도 그들 부부와 우리 부부가 이곳에서 함께 산책을 하곤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치료를 할수록 병이 나아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악화되는 것 같아 바로 그녀를 위한 구일기도를 시작하였다. 위급할 때면 무조건 간절한 탄원으로 소리쳐 매달리는 묵주기도, 항암치료를 잘 마치도록 도와달라는 지향으로 매일 아침 묵주기도를 바쳤는데 청원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우리의 마음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슬픔 속으로 깊숙이 빠졌으며 연민과 아쉬움과 눈물로 가득 차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성모님은 구일기도를 듣기는 하시나?’ ‘여기서 기도를 종료해야 하나?’ 생각할수록 모든 비난과 원망은 성모님에게 쏟아졌고 그날 밤은 온통 비탄과 절망만이 가득하였다. 다음날 아침 구일기도에 대하여 차분히 성찰하니 그녀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보살핌을 받아 지상에서의 고통, 근심 모두 떨치고 지상에서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은 하느님의 예정대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제야 진정한 감사기도를 바칠 수 있었다.

내년 국화축제 때에는 생전에 함께 걸어갔던 해양공원 보도교에 올라가서 금년 축제 때 전하지 못한 진노랑 국화꽃 향기와 보고 싶은 내 마음을 국화꽃 묶음에 실어 은하수를 건너가는 합포만의 잔잔한 물결에 띄워 보내야겠다.



꼬끼오오~~ 새벽 일꾼들

박명진 아브라함/ 교구 가톨릭농민회 부회장

새벽 3시쯤 되면 우리 집 새벽 일꾼들이 꼬끼오오~~ 힘차게 기상나팔을 부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새벽닭 울음소리에 시간을 가늠하였습니다. 계란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인 단백질, 콜린, 비타민(A, B12, D, E)과 같은 필수 영양소와 철, 인,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이 들어 있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계란을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 시키면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하고 신체에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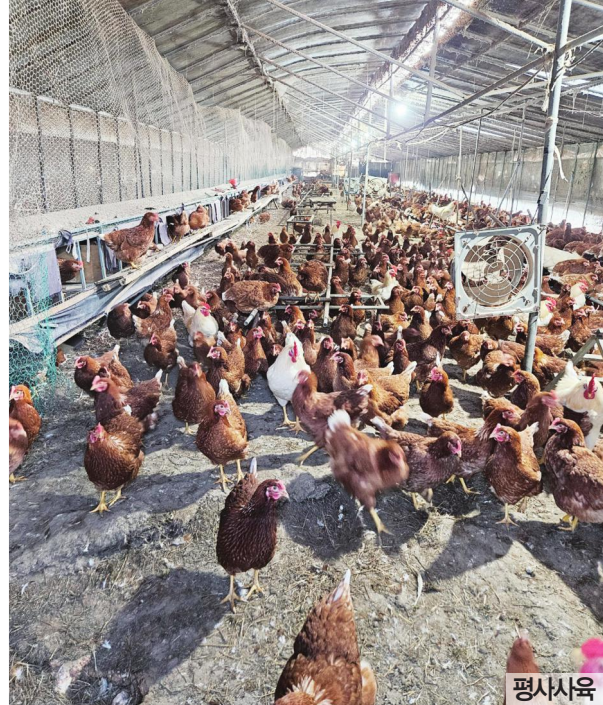
저희 농장에서는 녹차잎을 먹인 녹차 유정란과 밀싹을 먹인 밀싹 유정란 두 종류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나오는 녹차잎으로 사료를 만들어 공급하기에 녹차 유정란이라 부르고, 밀싹은 영양이 가장 풍부한 15cm 자란 시기에 채취하여 먹이로 공급해 밀싹 유정란이라 하였습니다. 미국의 국민 시인 휘트먼이 풀잎은 신의 손수건이라고 했듯이, 닭들도 풀잎을 많이 섭취해야 자가면역력이 생겨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와 같이 풀잎은 닭에게 종합 비타민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닭도 목욕을 합니다. 땅을 파고 흙으로 날개를 펴고 몸속 진드기와 해충들을 털어냅니다. 닭의 생육환경에 토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닭들도 흙에서 자라야 건강합니다. 과거 살충제 파동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평사사육을 통해 넓은 마당에 풀어놓고 기르기에 사육환경 번호가 2번이 됩니다. 자연방사한 2번 사육환경의 닭들에게는 흙이 치유와 먹이, 놀이의 공간이기에 흙 목욕, 일광욕을 통해 자체 면역력 증진으로 살충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닭도 하늘의 기온과 땅의 기온이 통하는 공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계란을 냉장 보관 시 소비기한은 40일 정도 됩니다. 계란 껍질 코드라고도 하는 난각 번호는 계란 껍질에 표시된 숫자로 알을 낳은 날짜, 생산한 농장, 사육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산란일(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 번호(1자리)]

가톨릭농민회에 가입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톨릭농민회와 함께하며 생명농업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해 6개월의 예비신자 교리를 마치고 12월 11일 아브라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날 새로이 태어났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슴 뭉클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으로 살아온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을 가득 체험하였습니다. 교리를 받으면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내가 하는 노동의 행위로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며, 욕심내지 않고 베풀면서 살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또한 우리농 정회원 활성화를 위해 2년 정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저렴하게 유정란을 드실 수 있게 한 날들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들이었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노동을 통한 일상의 기도는 영혼을 젊고 맑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기르는 우리 집 새벽 일꾼들이 힘차게 꼬끼오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사사육



지역할 선종 사제



김덕신(요셉) 신부
2018년 3월 1일



석종관(바오로) 신부
1974년 3월 3일

교구 사목 방문

일시: 2월 27일(화)
본당: 거제/ 장승포/ 옥포

일시: 2월 29일(목)
본당: 삼계/ 양덕동/ 남성동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2월 28일(수)
본당: 산청/ 합천/ 여좌동/ 중앙동/ 용원/ 덕산동/ 경화동

일시: 2월 29일(목)
본당: 고성/ 북산동/ 사천/ 삼천포/ 남해

교구/본당

신앙대학
일시: 3월 2일(토)~3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2024년 전례와 꽃예술학교 1학기 수강생 모집
일정: 3월 11일~6월 24일, 15주간
개강일-3월 11일(월) 10:00
장소: 교구청

▶기초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

▶봉사자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기초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봉사자, 3)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 *3가지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지도자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35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봉사자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민간자격증 사범2 이상

*1, 2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222차 ME주말 안내
일시: 3월 15일(금)~17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황인성(골디아노) 010·4570·3392
김은수(소피아) 010·9234·8171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창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1주(월) 19:3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비대면: 1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3월 3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장애·비장애 통합 합창단 '파협 합창단' 단원 모집
일시: 매주 목요일 10:00~12:00
장소: 진해장애인복지관 2층 대강의실
모집: 수시(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분야: 합창, 피아노 반주(반주자는 자원봉사 실적 등록 가능)

신청 및 문의: 055·540·0440(진해장애인복지관 생애맞춤지원팀)

기 타

청주교구 1박 2일 치유 피정(무료)
일시: 3월 1일(금) 18:00~2일(토) 17:00
장소: 초정성령회관
강사: 김완식 요셉 외 유명강사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3월 23일(토) 11:00~24일(주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회비: 8만 원(사전 접수자만 피정 가능)
문의: 010·5490·534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시민옹호 사업 손옹이(손에 닿을 곳에 시민옹호인이 있다) 3기 모집

모집대상: 성인 발달장애인, 장애인과 인권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활동기간: 3월~12월
내용: 발달장애인과 시민옹호인이 1:1 매칭되어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 지원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55·247·5194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2월 26일(월) 19:00	중앙동성당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요한 11,43)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청주교구)		010·5247·9900
진주지구	2월 26일(월) 19:00	신안동성당	회개	표종관 베드로 신부(부산교구)		010·3846·198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여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대성익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희성동)
김종운(클레멘스)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성바오로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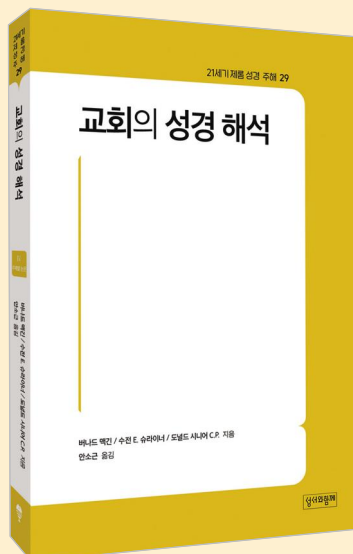


2024년 1학기 교구 성경공부 일정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톨릭 문화원	3월 5일(화) 10:00	일반	요한 복음서
가톨릭 문화원	3월 5일(화) 12:30	통독	오경
구암동	3월 4일(월) 19:30	일반	요한 복음서
산호동	3월 7일(목) 20:15	일반	바오로 서간
상남동	3월 6일(수) 14:00	지혜	사도행전
양덕동	3월 4일(월) 10:00	지혜	역사서1
	3월 4일(월) 19:30	일반	루카 복음서 · 사도행전
영 산	3월 8일(금) 10:40	은빛	로마서와 코린토서
월 영	3월 5일(화) 10:00	일반	역사서1
	3월 6일(수) 20:10	일반	오경(탈출기)
월남동	3월 7일(목) 20:00	일반	루카 복음서 · 사도행전
의 령	3월 2일(토) 19:30	첫걸음	서간과 요한묵시록
	3월 6일(수) 10:30	지혜	역사서2(역대기)
진 동	3월 4일(월) 19:30	첫걸음	구약(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창 념	3월 7일(목) 10:00	일반	루카 복음서 · 사도행전
칠 원	3월 8일(금) 10:40	지혜	역사서2(사무엘기)
호 계	3월 5일(화) 10:00	일반	역사서1
창원지구			
가음동	3월 7일(목) 10:00	일반	역사서1
대방동	3월 5일(화) 10:00	일반	예언서
덕산동	3월 4일(월) 19:30	일반	역사서2
	3월 5일(화) 10:00	일반	요한 복음서
	3월 7일(목) 10:50	지혜	예언서1
반 송	3월 6일(수) 10:30	일반	오경(탈출기)
	3월 7일(목) 10:40	은빛	요한 복음서
사파동	3월 4일(월) 2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3월 8일(금) 10:40	일반	오경(창세기)
수 산	3월 8일(금) 10:4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용 잠	3월 6일(수) 19: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중앙동	3월 8일(금) 10:40	일반	마태오 복음서

진주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좌동	3월 6일(수)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거 창	3월 6일(수) 19:30	일반	예언서
금 산	3월 7일(목) 10:00	일반	역사서1
남 해	3월 6일(수) 10:30	일반	역사서1
사 천	3월 4일(월) 19:30	일반	역사서2
	3월 8일(금) 10:40	일반	역사서2
산 청	3월 6일(수) 10:40	지혜	마르코 복음서
	3월 8일(금)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삼천포	3월 8일(금) 19:30	첫걸음	복음서와 서간
상평동	3월 6일(수)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신안동	3월 5일(화) 10:00	일반	마르코 복음서
옥봉동	3월 6일(수) 19:30	일반	오경(탈출기)
평거동	3월 6일(수) 10:40	은빛(종합)	요한 복음서
	3월 7일(목) 20:10	일반	예언서
함 양	3월 4일(월) 19:30	일반	예언서
거제지구·복지시설			
거 제	3월 8일(금) 10:30	은빛	요한 복음서
고 현	3월 8일(금) 10:40	일반	역사서1
대 건	3월 7일(목) 10:00	일반	역사서2
북신동	3월 7일(목) 10:00	일반	역사서1
태평동	3월 6일(수) 19:30	일반	마르코
	3월 8일(금) 10:4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작은예수회	3월 7일(목) 10:00	은빛	신약(마태오)
장 평	3월 7일(목) 10:30	일반	마태오
지세포	3월 6일(수)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하 청	3월 8일(금) 10:40	일반	역사서2

★ 문 의 : 성경사목부 055·249·7025~6



- 지은이: 버나드 맥긴, 수잔 E. 슈라이너, 도널드 시니어 C.P.
- 옮긴이: 안소근
- 출판사: 성서와함께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시리즈 제29권 교회의 성경 해석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제29권인 『교회의 성경 해석』은 전체 33권 중 제 29권이고, ‘주제별 논문’ 부분입니다. 논문 두 편을 묶은 책으로, 안소근 수녀가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1600년까지의 성경 해석>으로, 버나드 맥긴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중세까지의 성경 해석을, 수잔 E. 슈라이너는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논문 <교회와 근현대 가톨릭의 성경 쇄신>은 도널드 시니어 C.P.가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레오 13세의 <섭리하시는 하느님>부터 베네딕토 16세의 <주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교회 문헌에 나타난 가톨릭의 성경 해석을 다룹니다.



향심기도란 어떤 기도인가요? 2

윤행도 가롤로 신부/ 월영본당 주임



“향심기도는 관상기도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침묵기도입니다. 관상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며, 숨결보다 가깝고 사고보다 가까우며 의식 그 자체보다 가까운 하느님 현존을 체험합니다. 이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이면서 그 관계를 촉진시키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향심기도는 다른 기도를 대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기도에 깊은 의미를 더하며 능동적 기도 -소리기도, 정신기도, 정감적기도- 에서 하느님 안에서 쉬는 수용적 기도로 옮겨가게 도와주지요. 향심기도는, 기도가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과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넘어서 그분과의 친교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향심기도의 원천은, 관상기도로 이끄는 모든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향심기도의 초점은 우리와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며, 향심기도의 효과는 공동체적입니다. 곧 이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구성원들을 상호 우정과 사랑 안에 결속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한국관상지원단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향심기도가 어떤 기도이고 어떻게 하는 기도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향심기도, 즉 관상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0~2세쯤에 형성되는 안전과 생존의 욕구, 2~4세쯤에 형성되는 애정과 존중의 욕구와 힘과 통제의 욕구가 그것인데, 이 세 가지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욕구가 무의식(비의식)에 자리를 잡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에너지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반대로 욕구가 좌절되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라면서 욕구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마다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줄 그 무엇을 찾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참자아와 반대되는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아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필요한 만큼만 사지 않고 항상 여유로 한두 개를 더 삽니다. 일곱 남매 중 여섯째로 자라면서 형들이 제 것을 가져갔던 기억 때문에 제 것을 여유 있게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안전과 생존) 때문입니다.

제가 부제였을 때 강론 실습 시간에 담임 신부님이 어떤 모습의 사제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각오, 즉 ‘사목강령’을 적게 하여 동료들 앞에서 발표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한 ‘사목강령’에는 무려 32가지의 결심이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한가위나 설 명절 때 사목위원들께 제 돈으로 선물을 해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대로 사제로 서품된 후 제법 오랫동안 본당 사목위원님들께 명절 선물을 드렸었는데 향심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는 ‘숨은 동기’를 찾아보았더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 위함이었습니다(애정과 존중의 욕구).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은 기억이 없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짓’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거나 봉사라 하더라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정화되지) 못하면 그 일을 통해 영적으로 진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숨은 동기’란 세 가지 욕구가 좌절되거나 완전히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써 우리의 의식이나 행동을 유발시키는 감추어진 동기를 말합니다.



성화 영상과 함께하는 사순 시기 묵상



최재상 마티아 신부 작

거룩한 변모는 그 사건 자체를 뛰어넘어 마지막 부활을 향하여 나아감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존자 베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 주님은 당신의 옷인 교회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2코린 7,1) 깨끗하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축복과 육과 영의 빛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존자 베다 『복음서 강해』 1,24)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 또한 “더 이상 단순한 자연의 형태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신비롭게 간직하시며 그들의 목적인 충만으로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감탄하셨던 들판의 바로 그 꽃들과 새들은 이제 그분의 빛나는 현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찬미받으소서』, 100항)



우리가 기후이다.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전의 인류가 누리지 못한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린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물질적 풍요의 총량을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는 분명 인류의 경험과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먼저 일어난 혁명적인 일은 농업혁명, 즉 농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농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후 인류는 문명을 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현생 인류가 출현하고 곧이어 시작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 학자들은 지난 10만 년 동안의 기온 변화를 연구한 후, 현생 인류가 오랜 기간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지구의 기후가 극단적 날씨와 추위로 인해 수렵, 채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만 년 전부터 지구의 기후가 변하기 시작하여, 안정적이고 온난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질시대를 인류가 자연과 조화로운 '완전한 시대'라는 뜻에서 '홀로세 Holo-cene'라 명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현생 인류의 문명이 지구의 기후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에, 기후가 붕괴한다면 우리가 이룩해 놓은 인류의 발전 또한 붕괴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지구의 역사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멸종을 제외하고도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멸종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사라진 종 중에서 확실하게 멸종한 종의 부류는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종이라고 합니다. 가장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는데, 기후 환경의 변화로 그 환경적 요소가 사라지자,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후 위기로 환경이 변화될 때,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장 번성한 종이 무엇일지는 명확합니다.

인류가 지금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두 가지 버전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7일간의 창조 과정을 전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Imago Dei*” (창세 1,28) 창조 사업의 6일째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셨고,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창세 1,28)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명은,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 우월함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는 그 존엄함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후에야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존재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환경의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위기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로 파생되는 위기는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물종의 생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현재의 기후에 적응되어 재배되고 있는 식량자원의 문제, 가뭄과 홍수에 따른 물과 관련된 문제,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에 따른 생물종의 멸종과 인수 공통 전염병의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는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미 가뭄과 기후의 피해로 전 세계의 곡물과 과일 등의 가격은 상승하였고, 이는 곧바로 각 가정의 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문제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였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에 따라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잦아질수록 그 위험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땅을 지배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자신을 스스로 이해합니다. 이는 땅과 하느님의 피조물을 인간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맞갖은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기반인 기후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번성”의 축복(창세 1,22)을 주셨듯이, 주님의 피조물을 돌보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땅과 생물을 다스리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려라.”라는 명령은 인류가 하느님의 다른 피조물에 일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상호관계 안에서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들을 “번식하고 번성하게”(창세 1,22) 하는 것이 바로 인류를 번성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샌디에고 *Frans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탄소 발자국^{2000*}을 줄입시다!

*글자체: 빙하체, '노타입' 개발, '글자 축'을 활용해 북극해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주 빙하량연도는 2000년입니다.

실천사항 2 거절하기_Refuse

'떴다 떴다 비행기'의 불편한 진실

비행기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EBS 뉴스G

그들이 비행을 거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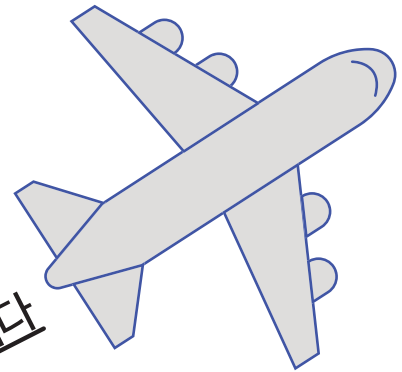
항공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합니다.(국제에너지기구, 2018)

그러나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버스의 2.5배, 기차의 6배에 이릅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2018)



운송수단에 따른 탄소발자국(단위:g)

-승객 1명이 1km 이동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비행기는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권 가장 가까이에서 배출합니다



비행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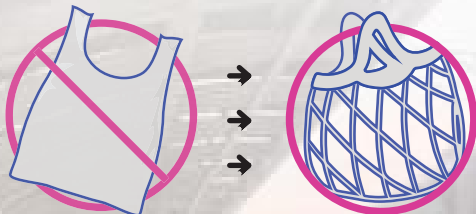
비행운이란 항공기가 8km 고도를 운항할 때, 뜨거운 배기가스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미세 탄소입자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생성되는 가늘고 긴 꼬리 모양의 구름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생성된 비행운은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을 가두어 대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함께! 거절해요 :)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1. 장바구니 사용으로 비닐봉투 거절



2. 음식 배달 시 일회용 수저 거절

요청사항

- ☒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
- ☒ 김치 등 무료 반찬은 안 주셔도 돼요



함께! 떠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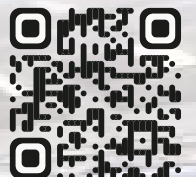
남도해양열차타고 떠나요 전라도로~!

남도해양열차(S-train)란?

남도해양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남도 문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열차입니다. 여수~서울을 잇는 전라선(목~월 운행), 부산~광주송정을 잇는 경전선(주말 운행) 두 개의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Let's Korail

남도해양열차 안내 페이지



남도해양열차(S-train) 경전선 노선도